**제7강 다윗 (상) (양치기 목동에서 왕으로 준비됨)**

**1. 사울 왕의 실패와 양치기 목동 다윗 등장**

1. 인본주의로 실패한 왕 사울 (사무엘상 9-12장)
2. 세상적인 킹카: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 (사무엘상 9:2), 효심도 있고 생각이 깊음 (사무엘상 9:5),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사무엘상 9:20, 10:22, 27-27),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사무엘상 10:6, 10-13), 관용의 사람 (사무엘상 11:12-13)
3.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함 (사무엘상 13장,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제사를 지냄),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께 오는 복을 구함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을 남겨둠) 🡪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5:22),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심.
4. 사울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의 주권을 가볍게 여긴 인본주의 🡪 좋은 자질과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울 왕은 스스로 자기의 복을 차고 실패함.
5. 양치기 목동 다윗 (사무엘상 16장)
6. 베들레헴의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치기 목동: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사무엘에게 보여 주지도 않은 막내, 그러나 양떼를 치는 목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7.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 선택 받은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음

**2. 다윗의 여정 요약**

|  |  |  |
| --- | --- | --- |
| 장소 | 성경 | 다윗의 여정 |
| 베들레헴 | 삼상 16:1-13 |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 |
| 기브아 | 삼상 16:14-23 | 사울 왕의 궁중 악사가 됨 |
| 삼상 17 | 골리앗을 물리침 |
| 삼상 18 |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의 시작, 군대 장관이됨, 미갈 공주와 결혼 |
| 블레셋, 광야 등 (도피생활) | 삼상 19:18-24 | 사무엘에게 피함 |
| 삼상 21:1-9 | 놉의 제사장들에게 머뭄 |
| 삼상 22 | 아둘람 굴 공동체 |
| 삼상 24, 26 | 사울을 두번 살려줌 (엔디게 동굴, 십광야) |
| 삼상 27-30 |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머무름, 아말렉 사람을 물리침 (30장) |

**3. 주요 사건**

1. 다윗 vs.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2. 사울 왕궁의 궁중 악사: 목동으로 들판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던 다윗은 악령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울을 위해 그의 앞에서 수금을 연주함. 🡪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물러남. (사무엘상 16:14-23)
3.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형들을 찾아간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목동의 도구 (물매와 돌)로 그를 물리침. 🡪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 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사무엘상 17:45-47)
4. 늘어나는 다윗의 인기와 사울의 시기심: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였고, 군대의 장으로 임명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의 인기는 날로 올라가고, 그로 인해 사울은 두려워하며 다윗을 왕위를 위협하는 정적으로 인식. 🡪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사무엘상 18:28-29)
5. 다윗의 도피 생활
6. 도피 여정 요약 (사무엘상 19장-31장)
	* + 라마의 나욧 🡪 에셀 바위 옆 (요나단과 언약) 🡪 놉 (제사장 아히멜렉) 🡪 가드왕 아기스 (미친척 하여 위기를 모면) 🡪 아둘람 굴 (400명 공동체 형성) 🡪 그일라 🡪 십광야 호레스 🡪 마온 광야 🡪 엔게디 산성 (사울을 살려줌) 🡪 바란 광야 (나발과 아비가일) 🡪 십광야, 여시몬 하길라산 (사울을 두번째 살려줌) 🡪 시글락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영토)
		+ 다윗의 도피 여정, 광야 생활 가운데 다윗의 영성 본질이 만들어짐: 삶의 궁극적인 근본에 대면 🡪 자연의 아름다움과 목숨의 위협 사이의 긴장 🡪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소중함을 직면
		+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수한 시편들을 지음. 기도를 선택하며, 거룩을 연습함
7. 아둘람 공동체 (사무엘상 22:1-2): 다윗의 형들과 식구들,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인 400명 공동체 이들은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밀려난 변두리 인생들, 세상의 실패자들이었음. But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의 용사들로 변모!! 🡪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비교해보자!!
8. 나발과 아비가일 (사무엘상 25장): 부유한 가축 떼를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나발이 광야에서 양떼를 보호해준 다윗 공동체에 보답을 해주지 않자, 다윗이 분노하여 나발에게 복수하러 갈 때, 그의 현숙한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가지고 가서 다윗의 분노를 풀어줌. 🡪 분노하여 실수 할뻔한 다윗을 막아준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 이 여인은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의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줌
9. 사울 왕을 두번 살려줌 (사무엘상 24, 26장)
	* + 엔게디 동굴에 용변을 보러 사울의 겉옷 자락만 몰래 자름 그러나, 겉옷 자락만 자른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낌. 🡪 다윗은 절대로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운 사울 왕을 해하지 않는다고 고백!! Why? 다윗은 사울 보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봄!!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있음
		+ 십 광에서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사울 왕,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깊이 잠들게 하였으나, 다윗은 조용히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옴. 🡪 다윗은 또 한번 고백함.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 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6:23)
		+ 사울도 자기를 죽이지 않는 다윗이 결국 왕이 될 것을 확실히 알게됨.
10. 다윗과 요나단 (연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관계)
11. 골리앗 사건 이후,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어 그와 친구로 지내기로 언약함, 자기의 겉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줌 (사무엘상 18:1-4) 🡪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요나단 황태자!! 세상 역사에 이런 황태자가 있을까?
12. 다윗과 요나단의 첫번째 언약: 요나단의 고백,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 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 주게." (사무엘상 20:12-15)
13. 십 광야에서의 요나단의 격려: 사울의 추격으로 십 광야 수풀에 있을 때,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나단이 나타나 다윗을 격려하고 두번째 언약을 맺음. 🡪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사무엘상 24:16-18)
14. 다윗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큰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요나단의 사랑이었음!!!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그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갚음.

**4.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어가는 다윗**

1. 양떼를 치며 수금으로 찬양을 하며 자유로이 예배하던 소년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많은 전쟁을 이긴 군대의 장군으로 성장하고,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해가며,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왕으로 준비되어 감. 🡪 다윗은 인생의 소유권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고난 가운데 성숙해져 감.
2. 다윗이 왕의 되기 전 마지막 시험, 아말렉의 기습 (사무엘상 30장): 다윗과 그의 600명의 군인과 함께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머물던 시글락에 없었을 때, 아멜렉 사람들이 비열하게 기습하여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붙잡아 데려감.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말할 정도의 절대 절명의 위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더 굳게 의지함. 🡪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는데 성공, 그들을 물리치고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데려옴.

